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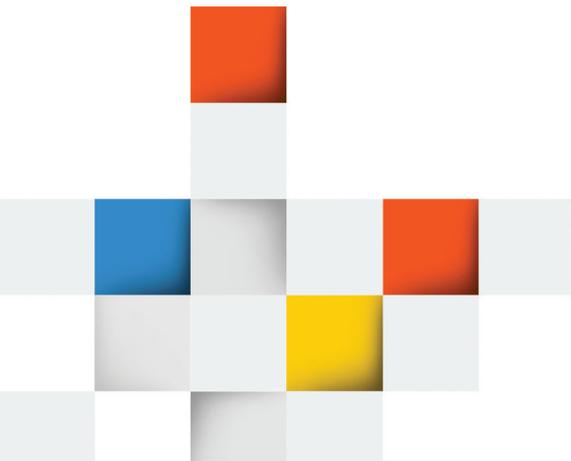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 변화

계봉오 (국민대학교)

- 미혼자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혼인시기의 지연뿐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 증가로 인한 것이다. 40대 미혼자 비율은 2020년에 남성은 23.6%, 여성은 11.9%로 2000년보다 남성은 7배 이상, 여성은 5배 이상 증가했다.
- 미혼자는 유배우자와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미혼자는 유배우자보다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은 반면, 여성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은 유배우자보다 높았다. 한편 남녀 모두에서 미혼자의 가구원 수는 유배우자보다 적다.
- 미혼자는 유배우자와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유배우자보다 부정적이고,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는 미혼자가 더 긍정적이며, 미혼자의 성역할 태도는 유배우자보다 성평등적이다.
- 19~34세 미혼자의 결혼의향은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미혼 남성의 결혼의향이 미혼 여성보다 긍정적이고, 개인의 경제적 상태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긍정적인 결혼의향을 갖고 있다. 한편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자가 생활만족도가 높고 가족형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지속해서 하락해 왔는데,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1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23년에는 0.72명으로 떨어졌다. 초저출산 지속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혼인율의 하락인데 결혼이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

서 이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혼인율이 하락함에 따라 미혼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규모, 특징, 결혼의향 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기술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미혼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 미혼자는 어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갖는가? 셋째, 미혼자의 가치관과 태도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 넷째,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다섯째, 미혼자의 결혼의향은 삶의 만족도와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미혼자를 정의해야 한다.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를 내포하여 결혼의 보편성을 가정하는 개념이라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단순히 지칭하는 비혼이라는 용어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 활용하는 미혼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유배우자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자, 이혼 및 사별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결혼 경험이 있는 자’(ever-married)가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편의상 유배우자로 표현하도록 한다.

분석대상은 20~40대로 삼는데, 이는 20대 미만은 결혼을 하기에 너무 어리고 50세 이상의

결혼은 가족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성과 연령과 따라 미혼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성 및 연령별로 제시한다. 분석자료로는 「인구총조사」, 「사회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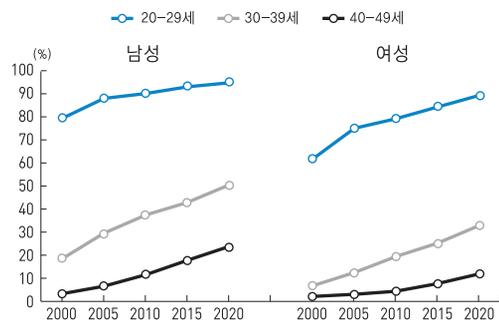
미혼의 증가

미혼자의 규모에 대한 답은 [그림 I-14]의 성 및 연령별 미혼자 비율 추이에서 볼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혼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계속 증가해 왔다. 20대의 미혼자 비율 증가는 혼인 시기가 지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20대 미혼자 증가가 생애 미혼의 증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40대의 미혼자 비율 증가는 생애 미혼의 증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40대 남성의 미혼자 비율은 2000년 3.5%에서 2020년 23.6%로 7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40대 여성의 미혼자 비율도 같은 기간 2.1%에서 11.9%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생애 미혼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생애 미혼의 증가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미혼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남성과 여성의 미혼자 비율 차이는 20대의 경우 2000년 17.9%p에서 2020년 6.0%p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여성

의 혼인 시기가 더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30대는 11.7%p에서 17.7%p로, 40대는 1.4%p에서 11.7%p로 성별 미혼자 비율 차이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40대의 성별 차이는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다. 이는 남성의 생애 미혼이 여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 매체에서는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성의 이미지가 흔히 등장하는데, [그림 I-14]는 남성의 생애 미혼율이 여성보다 높고 그 차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14] 성 및 연령별 미혼자 비율, 2000-2020



주: 1) 미혼자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2) 통계치는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중 해당 연령 미혼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1% 표본)」 원자료, 각 연도.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미혼자의 연령대별 성비 변화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우선 각 연령대별 미혼자의 성비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연령



대별 미혼자의 성비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하나는 출생 시 성비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 시기의 차이이다. 출생 시에 남성 비율이 높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빨리 결혼하게 되면 미혼자 중 여성의 비율은 낮아진다. 미혼자의 성비가 불균형해지면 혼인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같은 연령대의 성비가 혼인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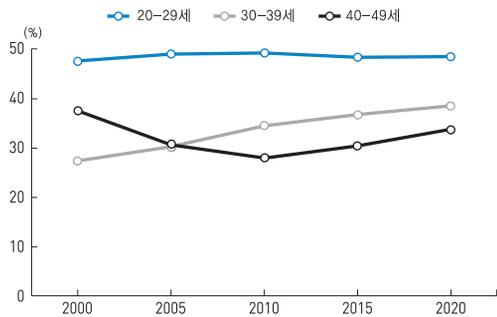
[그림 I-15]에 따르면 20대 미혼자의 여성 비율은 50%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30대 미혼자의 여성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미혼자의 여성 비율은 2010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고 있다. 우선 남녀 모두 20대 혼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20대 미혼자의 성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30대 미혼자의 여성 비율 증가는 [그림 I-14]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30대 미혼자 비율의 성별 차이 증가와는 일견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미혼자 비율이 남성은 2000년 18.7%에서 2020년 50.5%로, 여성은 7.0%에서 32.8% 증가한 것을 확인했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미혼자 비율의 차이는 증가했지만, 2000년에는 30대 미혼자의 성비가 여성 1명당 2.7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그 수치가 1명당 1.5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 이후 40대 미혼자의 성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 남성의 미혼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지만, 여성의 미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자들의 성비는 비슷해지고 있다. 미혼자의 여성 비율 증가는 혼인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성비불균형이 완화되면 혼인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I-15] 미혼자의 연령별 여성 비율, 2000-2020



주: 1) 미혼자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2) 통계치는 해당 연령 미혼자 중 해당 연령 여성 미혼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1% 표본)」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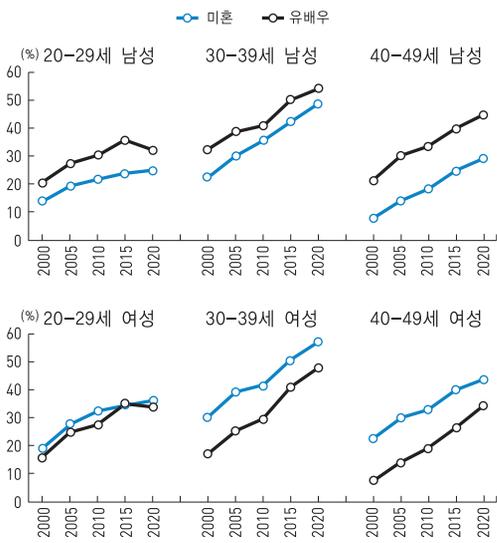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특성 비교

이번에는 유배우자와 미혼자들의 교육수준, 고용률, 평균 가구원 수를 비교함으로써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유배우자는 이혼자와 사별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한 번 이상 결혼을 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첫째, [그림 I-16]은 두 집단의 대졸자 비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성별 및 혼인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의 대졸자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남성은 유배우의 대졸자 비율이 미혼자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반면, 여성은

반대로 미혼자들의 대졸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유배우자와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 차이가 4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 미혼이 남성은 저학력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여성은 고학력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과 미혼의 관계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16]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대졸자 비율, 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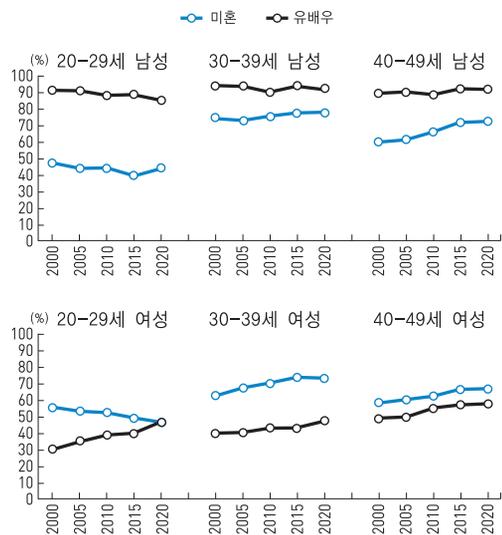


주: 1) 미혼자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2) 유배우자는 한 번 이상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며 사별자와 이혼자를 포함함.
 3) 대졸자는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를 의미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1% 표본)」 원자료, 각 연도.

둘째, [그림 I-17]은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고용률을 성별로 비교하고 있다. 남성은 유배우자의 고용률이 더 높고 여성은 미혼자의 고용률이 더 높은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남성 유배우자의

고용률은 90% 수준에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미혼 남성의 고용률은 20대는 50% 정도, 30대는 70%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고 40대 미혼자의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대 미혼 남성의 낮은 고용률은 이들 중 많은 수가 대학 재학 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0대 미혼 남성의 고용률 상승은 미혼의 증가와 연결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이 보편적이었던 과거의 미혼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속성을 이들의 비중이 높았을 텐데 미혼이 점차 증가하면서 미혼 집단의 특수성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그림 I-17]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고용률, 2000-2020



주: 1) 미혼자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2) 유배우자는 한 번 이상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며 사별자와 이혼자를 포함함.
 3) 고용률은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휴직', '일하지 않았음' 중에서, '주로 일하였음'으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1% 표본)」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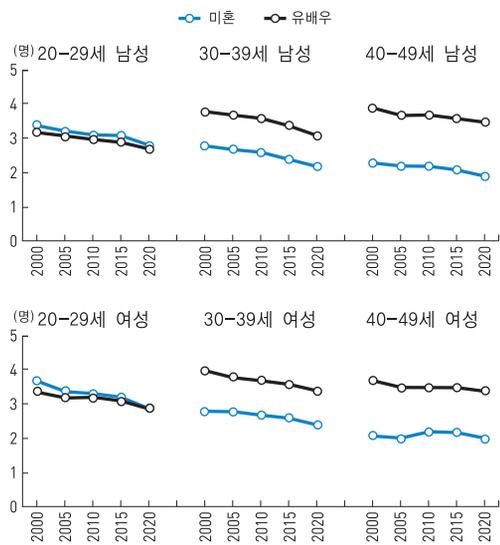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 약화가 40대 미혼 남성과 유배우 남성의 고용률 격차 감소로 연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혼 여성과 유배우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0대에서는 수렴, 30대와 40대에서는 유지되고 있다. 유배우 여성의 고용률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상승하는 추세이며 미혼 여성의 고용률 역시 20대를 제외하면 상승하고 있다. 미혼 20대 여성의 고용률 하락은 대졸 진학을 상승과 연결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연령 집단이 30대인데, 이는 결혼 및 출산 전후로 유배우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여성 미혼자의 고용률은 3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그림 I-18]은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평균 가구원 수를 비교하고 있다. 남녀 모두 혼인 상태와 상관없이 평균 가구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앞서 살펴본 교육 수준 및 고용과는 달리 평균 가구원 수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다. 남녀 모두 미혼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이는 20대 미혼자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부모와의 동거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배우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아지면서 증가한다. 유배우 여성은 30대의 평균 가구원 수가 40대보다 2015년 이전에는 더 많았는데, 그 차이가 점차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40대의 평균 가구원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출

산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자녀의 혼인 및 분가 역시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평균 가구원 수 차이는 남녀 모두 20대에는 0.5명, 30대에는 1명, 40대에는 1.5명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그림 I-18]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평균 가구원 수, 2000-2020



주: 1) 미혼자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2) 유배우자는 한 번 이상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며 사별자와 이혼자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표본)」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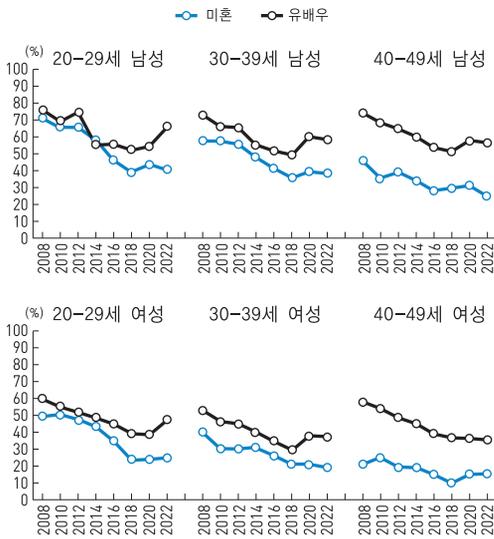
요약하면, 미혼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혼자의 여성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여성 미혼자는 유배우자보다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은 반면 남성은 반대이며, 미혼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유배우자보다 적다.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대졸자 비율, 고용률, 가구원 수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차이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미혼자의 가치관 및 태도

미혼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특성과 함께 가치관 및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19] 부터 [그림 I-22]까지는 성 및 연령별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결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결

[그림 I-19]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결혼에 대한 견해, 200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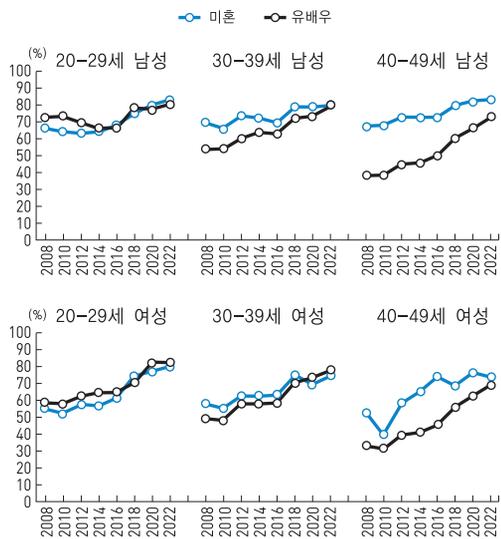


주: 1) 미혼자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2) 유배우자는 한 번 이상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며 사별자와 이혼자를 포함함.
 3) 통계치는 결혼에 대해 '잘 모르겠다'를 포함한 7점 척도 중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과와 마찬가지로 유배우자는 이혼자와 사별자를 포함한다.

첫째,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남녀 모두 혼인 상태와 상관없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가 연령대에 따라 약화 혹은 반전되었다. 남녀 모두 20대에는 유배우자와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유배우자들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었다. 30대에서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는데 미혼자와 유배우자 간의 차이는 20대보다 작다. 40대는 남녀 모두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차이가 다른 연령대보

[그림 I-20]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22



주: 1) 미혼자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2) 유배우자는 한 번 이상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며 사별자와 이혼자를 포함함.
 3) 통계치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 4점 척도 중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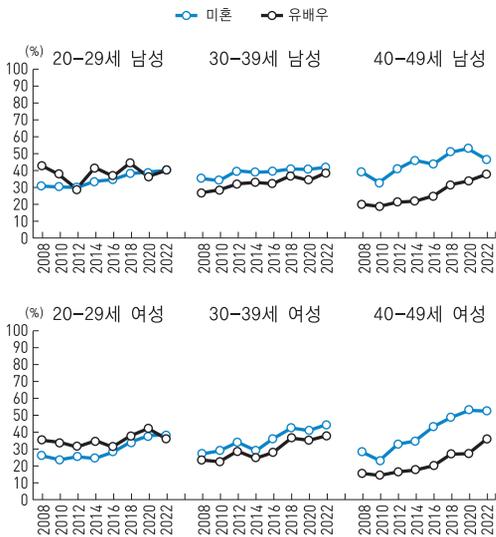
다 더 큰데, 이는 40대 미혼자들 중 상당수가 결혼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그림 I-19).

둘째,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연령대에 따라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20대와 30대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크지 않지만 40대는 미혼자가 유배우자보다 비혼 동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가 처음 조사된 2008년에는 성별과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나이가 많아질

수록 비혼 동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약해졌는데, 최근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그림 I-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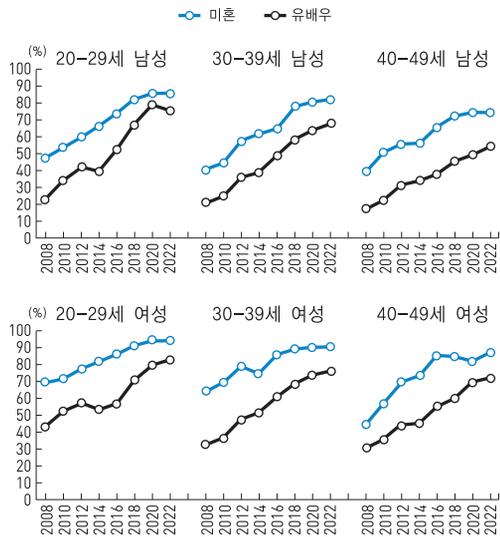
셋째,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는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혼자와 유배우자 간의 차이는 20대와 30대는 크지 않는데 40대는 미혼자가 유배우자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단, 40대 미혼 남성과 20대 유배우 여성의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는 2022년에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다른 집단에서는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

[그림 I-21]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 2008-2022



주: 1) 미혼자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2) 유배우자는 한 번 이상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며 사별자와 이혼자를 포함함.
 3) 통계치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 4점 척도 중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22]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2008-2022



주: 1) 미혼자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2) 유배우자는 한 번 이상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며 사별자와 이혼자를 포함함.
 3) 통계치는 가사 분담에 대해 5점 척도 중 '부부가 공평하게', '남편이 주로', '남편이 전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 허용적 태도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그림 I-21).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 혼인 상태와 상관없이 성평등적 태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성역할 태도가 변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이 어느 정도 가사를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로 미루어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 유배우자보다 미혼자가 더 성평등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성평등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22).

이처럼 [그림 I-19]부터 [그림 I-22]까지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미혼자들이 전반적으로 유배우자들과는 구분되는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혼자들은 상대적으로 결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 비전통적인 가족형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성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

20~30대 미혼자의 결혼의향

지금까지 미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치관을 유배우자와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미혼자들의 결혼의향을 살펴본다. 위에서는 20~40대 미혼자들의 특징을 검토했는데, 결혼의향은 19~34세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는 이 분석에 활용하는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가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0대 후반 이상의 결혼의향은 여기

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표 I-7〉은 19~34세 미혼자의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를 보여준다. 첫째,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약 80%의 미혼자들이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여성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보다 10%p 정도 높다.

둘째,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른 결혼의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가 비대졸자보다 결혼의향이 높고 상용근로자가 비상용 근로자보다 결혼의향이 높다. 반면,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남성에게서는 발견되지 않고 여성에게서만 나타나는데, 수도권 거주 미혼자의 결혼의향이 다소 낮다.

셋째,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 소득과 가구 재산 수준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 반면, 개인 소득과 개인 재산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견된다. 개인 소득이 높거나 개인 재산이 많을수록 미혼자의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보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주관적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에 따른 차이 또한 남녀 모두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데,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7〉 미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결혼의향, 2022

(단위: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령	가구소득 분위			
19-24	79.4	67.4	0-25%	78.7 68.7
25-29	80.2	71.1	25-50%	78.3 70.0
30-34	80.0	72.5	50-75%	79.7 68.9
교육수준	75-100%			
대졸 미만	77.8	65.9	개인소득 분위	
대졸 이상	82.9	73.5	0-25%	76.6 62.0
근로형태	25-50%			
상용근로자 이남	77.1	63.8	50-75%	80.7 72.6
상용근로자	83.2	75.7	75-100%	84.1 77.8
거주지	가구재산 분위			
비수도권	79.9	71.5	0-25%	77.8 68.4
수도권	79.8	68.4	25-50%	78.9 70.2
주관적 건강	50-75%			
좋지 않음	74.5	66.2	75-100%	81.0 69.7
좋음	83.4	73.1	개인재산 분위	
주관적 소득계층	0-25%			
하층	63.2	55.2	25-50%	76.6 65.2
중하층	75.0	66.4	50-75%	77.7 64.4
중간층	82.7	70.6	75-100%	81.1 72.9
중상층	85.2	75.9	75-100%	
상층	88.0	76.6		

주: 1) 음영은 유의수준 0.05에서 항목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특성인.

2) 통계치는 남성 6,662건, 여성 6,606건의 조사자료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집계한 값임.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2.

마지막으로 〈표 I-8〉은 결혼의향에 따른 만족도와 가치관을 비교하고 있다.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행복감, 삶의 자유가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차이가 여성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삶에서 각 항목이 갖는 중요성이 결혼의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항목으로는 연애,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 등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 들로는 학력, 소득, 사회적 관계, 사회 기여, 명

예와 권력 등이 있다. 즉,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결혼의향이 없는 사람들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8〉 결혼의향별 만족도 및 가치관, 2022

(단위: 점)

	남성			여성		
	결혼 의향이 없음	결혼 의향이 있음	차이	결혼 의향이 없음	결혼 의향이 있음	차이
만족도 (0~10점)						
전반적 삶	5.9	6.8	0.9	6.2	6.8	0.6
행복감	6.0	6.9	0.9	6.4	7.0	0.6
삶의 자유	6.3	7.1	0.8	6.6	7.1	0.5
삶에서 갖는 중요성 (1~4점)						
연애	2.5	3.1	0.6	2.4	3.1	0.7
결혼	2.2	3.2	1.0	2.0	3.1	1.1
자녀 출산과 양육	2.1	3.1	1.0	2.0	2.9	0.9
높은 학력수준	2.5	2.7	0.2	2.6	2.8	0.2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3.4	3.4	0.0	3.4	3.5	0.1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3.3	3.3	0.0	3.3	3.3	0.0
사회 기여	3.3	3.4	0.1	3.5	3.5	0.0
명예와 권력	2.6	2.8	0.2	2.8	2.9	0.1

주: 1) 통계치는 남성 6,662건, 여성 6,606건의 조사자료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집계한 값임.

2) 만족도는 각 항목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3) 삶에서 갖는 중요성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4) 차이는 결혼의향있는 집단의 평균점수에서 결혼의향없는 집단의 평균점수를 뺀 값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2.

미혼자의 결혼의향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혼자의 결혼의향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며 결혼의향은 미혼자의 삶의 만족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형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들이 가족형성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맺음말

이 글은 「인구총조사」, 「사회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치관을 비교하고, 미혼자들의 결혼의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미혼자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혼인시기가 지연되고 생애 미혼이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면, 남성은 유배우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고 여성은 미혼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남녀 모두 유

배우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결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나타나며,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태도는 미혼자와 유배우자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19~34세 미혼자의 결혼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개인의 경제적 상태와 주관적 건강 상태, 생활만족도, 가치관과 태도에 따라 결혼의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율의 하락하면서 혼인의 지연뿐만 아니라 생애 미혼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족형성 패턴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을 하락을 가속화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초저출산 시대의 가족정책은 증가하고 있는 미혼자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